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하시는 언약의 절대망대,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역대상- 역대상 16:8-11, 베드로전서 2:9

정윤돈 목사님

- * **대상16:8-11**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 *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자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을 걸고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으로 읽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윗 왕이 영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 말씀한 것이다. 대학에서 거시경제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제가 대학졸업 후 목회자를 한다고 하니 교회는 성도들이 졸업도 없고 진도도 다 달라서 어렵다고 하셨다. 현장에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목회를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구나 생각했다. 설교에서 단 한 마디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한다. 오늘 본문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중요한 사역자를 모아놓고 한 말이다. 다 제사장이고 목사님들이다. 목사님들이 자칫하면 목회를 잘못할 수 있다. 목회가 힘드니까 다른 걸 하고, 자리싸움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 특히 목사사모와 가족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자칫 내 남편, 아빠로 생각할 수 있다. 정말 응답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자칫하면 '재수없게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축복을 그렇게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일본 전국에 지교회당을 12개 지으신 선교사님이 계시다. 매우 신칸센을 타고 예배하러 가신다. 한국은 심방을 가면 그걸 배려하는 문화가 아닌데 일본은 심방하는 걸 다 배려한다고 하더라. 일본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다. 목사와 사모, 중직자, 팀장, 교사, 사역자들이 다윗의 영적 상태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 있다. 탈복자 영상을 보면 너무 어렵게 사신다. 쌀밥을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소원이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다. 물론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복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광야생활을 40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속지 않았다.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저는 고아원에서 백 명 넘게 가르쳤고, 지금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하고 공부 못해도 저에게는 다 성공할 가능성으로 보인다. 저는 십 년 동안 중증장애인과 지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가능성으로 보인다. 다 감사해야 한다. 영적상태가 감사로 바뀌시기 바란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만 가게 하신다고 생각한다. 왜 나를 괴롭히시는지 의아해 한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준비하셨다. 진짜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어렵다. 그걸 이면계약이라고 한다. 너무 응답인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이면

계약이다. 그게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야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030년부터 2080년 시대를 기도해라. 저는 스키를 타면서 참사랑교회 '보드 & 스키대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같이 스키를 타는 솔빈이가 다섯 대회를 우승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스키장에 망대와 지교회를 세워야 한다. 스키장을 가시는 분들은 겨울에 세 달 동안 교회를 못간다. 거기 지교회와 전문교회, 망대를 세워야 한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응답이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이다. 중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세워놓고 말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 주셨다. 구약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성령인도를 잘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부분은 제사장, 중간 부분은 참된 왕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 참된 왕과 나라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라는 내용이다. 구약 뒷부분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의 참된 선지자는 오직 그리스도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도 전도자로 쓰시고 사역자로 쓰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 분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무 것도 안 해도, 알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들은 다윗 왕처럼 237나라, 5000종족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절대망대'이시다.

오늘은 역대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역대기는 구약성경의 최종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역대상을 기록한 인물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다. 에스라는 성벽을 재건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정리했다. 여러분의 역할 한두 가지를 잘 하시기 바란다. 학교와 직장에서 주업에 충실하라. 한 가지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 된다. 우리는 대부분 내게 주어진 일을 등한시하고 주업에 충실하지 않는다.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그러나 그러면 문제가 온다. 우리의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은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그걸 향해서 집중할 때 행복할 수 있다. 그걸 찾지 못하면 나중에 공허하다. 나에게 주신 게 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도전하면서 산다. 역대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다윗 왕에 의하여 성전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랍넛트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성되어 갈 것이다. 무슨 말일까? 다윗이 금과 은과 돌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완성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성전을 다 짓지 않았는데 레위인까지 모두 준비했다. 꼭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약을 믿고 우리의 지금 시간표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언약의 망대이다.

1. 역대상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역대상서의 1장부터 9장의 내용은 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게 역대상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있었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는 42,360명이다. 15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보니 바벨론이 좋았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많은 언약과 말씀을 주시지만 정말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4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 랍넛트 그루터기가 되었다. 여러분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많은 교회가 아닌 소수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

(2) 두 번째로 역대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역대상서 1장 1절이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벳,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역대기서는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서 마지막 구절인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역대상서에서 완성하지 못한

걸 누가 완성한 것이다. 즉, 역대상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 족보의 시작을 아담부터 한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이것이 다른 역사서와 다른 역대기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잘못된 세계관과 역사와 과학과 철학과 지식들을 하나님중심으로, 그리스도중심으로, 복음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야 하겠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생명교육과 나오셔서 생명과학 책을 집필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다. 진화론을 빼아하지 않겠냐 물었더니 그러면 넣을 게 없어서 넣는다고 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안다. 램넛들이 실력을 갖추고 사밧이 될 이유가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절대미션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그렇다. 인류 역사상 지금 대학이 가장 많고 과학이 가장 발전되었지만 지금 시대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타락한 시대다. 대학 지식으로 안 된다는 말이다. 복음을 가진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시대가 행복하지 않다.

(3) 세 번째 역대상 10장부터 20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은 다윗 왕조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 역대상은 과거에 다윗이 세운 나라는 무너졌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 인생은 짧다. 캘리그래피도 하고, 체조도 하고, 악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할 게 너무 많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다. 즉, 역대상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긴 하였지만 아직도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성전은 회복했지만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역대상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상적으로 보서는 초라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예수 믿고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과 이면계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른 것을 다 용서하셔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주세요’ 믿지만 해도 여러분의 역할은 다한 것이다.

(4) 네 번째로 2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과 찬양과 말씀과 예배회복을 준비시킨 중직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윗은 램넛 출신의 영적사밧이었고, 복음엘리트였다. 램넛 출신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의 CEO가 되고, 그 분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 우리가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다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 부모님들도 모인다. 우리가 하나씩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일반 직원들은 직장에서 부르면 다 온다. 날마다 예배드리는데 아무 관계없다. 종교에 있어 오히려 한국이 더 어렵다. 그러나 잘만 하면 괜찮다. 공무원이 봤을 때 이상하게 하고 문제가 많은데 예배까지 드리면 못하게 한다. 제가 몇 십 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다 예배했다. 본질을 잘하면 오히려 도와준다. 악한 사람도 도와준다.

(5) 마지막으로 28장에서 29장에는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2. 역대상에 기록된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이 말씀들이 절대언약의 땅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다.

(1) 다윗은 성전건축을 사모하였다. 역대상 17장 1절을 보겠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기를 여호와와의 언약에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본인은 궁궐에 사는데 언약제가 천막에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겠다. 양평을 지날 때 보이는 통일교의 RUTC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들은 작은 RUTC도 없다. 다윗의 마음이 이것이다. 세상의 대기업들은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데 우리 교회성도들은 너무나 힘이 없다. 이단 신천지는 사기를 쳐서라도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한국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언약의 땅대이다. 우리들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만 가져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응답을 많이 받았다. 교회 안에서 램넛들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만들 것이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사촌동생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다.

(2) 다윗은 성전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세웠다. 중직자와 성도들은 먼저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야 한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못하지만, 목사가 없고 부교역자, 신학

교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진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선교사님이 없으면 선교 문도 다 닫는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역대상 23장 3절에서 5절이다. “레위 사람은 삼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그 중의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성가대가 4천 명이었다.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기 원한다. 이렇게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것은 왕과 대통령과 대기업의 회장님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한국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서밧이 일어나야 한다. 그 목사님들이 모두 선교에 마음이 있고 복음을 사랑한다. 그런데 사역할 교회가 없어서 대리운전을 한다. 다윗은 성전이 준비되기 전이고 건축되기 전인데 레위인을 3만 8천 명이나 준비시켰다. 얼마나 깨달음이 많은 중직자인가.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 후대 중에 나오기를 축원드리겠다. 한 번 외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3)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후대 램넛 솔로몬에게 이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후대도 힘써 행해야겠다. 네가 그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고 그를 찾으면 영원히 찾으시리라.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나중에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시켰지만 많은 우상도 섬겼다. 즉, 솔로몬은 다윗에게 들은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는 많은 우상도 섬기고 타락의 길로 갔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시 회복되어 전도서를 남겼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절대언약의 땅대이시다. 부모님은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남들은 조금만 미워도 버린다. 신분이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 최고 언약이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는 것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밧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언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언약이고 후대와 땅과 축복에 대한 언약이다. 그 핵심이 그리스도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신앙의 발판 10가지 누림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현상이 진정한 선교지’, ‘하나님은 생사회복의 주관자’, ‘모든 인간은 시한부인생’, ‘최후에 반드시 있는 천국 지옥의 심판’, ‘전도자는 영원한 상을 받는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누림 기도를 함께 드리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①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②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 ③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④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하실 권위있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⑤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⑥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⑦ 인생의 생사회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⑧ 단 한 번사는 시한부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옵소서. ⑨ 내세의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⑩ 전도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전도매대, 선교매대, 치유매대를 237나라에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완성시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주님의 날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절대언약과 절대매대를 세우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